본부장님 모두말씀

〔「이스라엘-하마스 무력 충돌 관련 수출상황점검회의」, '23.10.12〕

【 인사말씀 】

안녕하십니까?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입니다.

바쁘신 가운데
오늘 「이스라엘-하마스 무력 충돌 관련 수출상황점검회의」에
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【 최근 국제 정세 】

지난 7일 새벽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
양국간 교전이 중동지역의 대규모
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
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

다행히도 현재까지 약 1천여명의 우리 교민과
삼성전자·LG전자 등 현지에 진출한 7개 기업에
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,
향후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,
'한-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'을 통해
UAE·사우디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에 기반한
협력사업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.

【 이번 사태 관련 우리나라 수출 동향 】

현시점까지 이번 사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
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.

현지 내륙 운송은 일부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만
해상 운송 등 물류시스템과 함께
통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.

머스크, 짐라인 등 이스라엘 직항 운송선사는
정상 운항 중에 있으며
수출예정 물품의 예약도 계속 접수 중입니다.

주 3회 운항 중인 텔아비브 행 대한항공 운항은
현재 중단된 상황이나
운송화물 규모가 매우 적은 수준으로
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.

다만, 향후 사태 추이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,
이란 등 주변국으로 확전 시
우리 수출의 약 3%(연간 175억불 규모)를 차지하는
對중동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

정부는 수출유관기관과 함께
추후 사태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고
최근 우리 수출의 긍정적인 개선 흐름에
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
오늘부터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즉각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.

【 향후 대책 및 당부 말씀 】

우선, 산업부와 수출유관기관이 함께
「수출 비상대책반*」을 즉각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.

* (반장)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/ (반원) 무역협회, 코트라, 무보 등 관련 임원

이를 통해, 현지 동향을 민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,
현지 진출기업 및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해소에
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특히, 코트라·무역협회에 우리 기업을 위한
'애로접수 전용 창구*'를 개설하여
대체 시장 및 거래선을 찾는 기업에 대해
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.

* 코트라 1600-7119 / 무역협회 1566-5114

아울러, 분쟁지역 수출기업에 대해
무역보험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.
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최대 1.5배까지 우대하고
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신용보증을 감액없이 연장하겠습니다.
또한, 보험사고 발생 시
신속보상 또는 보험금 가지급*을 실시하겠습니다.

*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(2개월 이내→1개월 이내) 또는 1개월 이내에 보상이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필요시 보험금 가지급(사고금액의 80%)

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수출유관기관 여러분께서는
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지장이 없도록
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.

특히, '수출현장의 구조대원'이라는 각오로
현장 최전선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
최선을 다해 주시고
향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도
선제적으로 적극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